

## 2024학년도 2학기 글말교실 소감문



[대학생의 숙명, 자기소개서 쓰는 법]

|                |                                                                                               |
|----------------|-----------------------------------------------------------------------------------------------|
| 이름<br>전공<br>학번 | 이지현                                                                                           |
|                | 공법학전공                                                                                         |
|                | 20220704                                                                                      |
| 참여 프로그램        | <input checked="" type="checkbox"/> 1-on-1코칭 (신제원 교수님)<br><input type="checkbox"/> 글말특강 (-회차) |

## 대학생의 숙명, 자기소개서 쓰는 법

저는 자기소개 에세이를 제출하여 1-on-1 코칭을 받았습니다. 대학생 혹은 취업 준비생이라면 마치 숙명과도 같은 자기소개서 작성은 늘 골머리를 앓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나를 타인에게 소개하는 글, 그것도 나에 대해 특징이 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해서 나를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나를 소개해서 '제발 나 좀 뽑아주세요'라고 호소하는 글을 쓰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코칭은 저에게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학술적 글쓰기나 논문 쓰기에 대한 서적과 강의는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자기소개서처럼 개인의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글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이러한 코칭을 통해 제가 그동안 간과했던 글쓰기의 여러 측면을 배우고, 자기소개서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으로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할 일이 많지만,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함께 탈락할 경우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어 막연히 스스로의 부족함을 자책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점이 부족한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답답함을 느낀 적이 많았지만, 이번 코칭을 통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단순히 경험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가치관과 역량을 독자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글의 구조와 논리성을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 강점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코칭을 받으며, 글쓰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공 선택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에 대한 코칭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경험을 나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공이 저의 적성과 가치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예컨대, 제가 작성한 "법은 강력한 공권력"이라는 표현은 다소 모호하게 들릴 수 있으며, 이를 "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식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독자에게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제 강점을 드러내는 표현을 세밀히 다듬는 방법에 대한 코칭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고 외운다"고 표현하는 대신, "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논리를 구성하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강조해야 한다는 조언은 앞으로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쓰기 상황에서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장기적인 목표와 현실적인 계획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글의 구조를 더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배움이었습니다.

이번 코칭을 통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독자와 소통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글쓰기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넘어, 독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글을 쓸 때는 명확한 핵심 메시지를 먼저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와 논리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읽는 사람의 관점을 고려해, 그들이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글을 작성하겠다는 결심도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코칭 경험은 단순히 자기소개서를 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글쓰기를 위한 태도와 방법을 배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단순히 평가의 도구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독자에게 설득하고 제 가치를 뽐내는 기회임을 깨달으며, 앞으로는 더 자신감을 가지고 글쓰기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제 이야기를 더욱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